



도시동향 City Trend



대학 도시, 하이델베르크
 독일 남서부 라인강 지류의 네카르 강변에 위치한 하이델베르...

인천지표 Incheon Index



인천 학력향상 지표

최근 인천 학생들의 학력향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IDI 소식 IDI News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과 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이귀복)...

IDI 단상 IDI Platform



산새도 소국차

노란 마음 붉은 피, 소멸할 이 봄의 순간이 정도면 충분한...

칼럼 Column



이제는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때이다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계 많은 나라가 지속적으로 교육 개혁을....

IDI 연구 IDI Research



학교혁신 사례분석을 통한 인천시 공교육 질 제고 방안

본 연구는 기존의 위로부터의 학교혁신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비해....

zoom인천 ZoomINcheon



심정동 우시장

현재 부평구 심정동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소고기를 살 수 있는 우시장, 곱창.....

인터뷰 Interview



인천 학력향상 선도학교

아뜨리에 80호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이임구 장학사를 만나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취지와 목적...

칼럼 Column

이제는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때이다

정택희(전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원)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계 많은 나라가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대통령 직할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날로 더 커지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교육문제는 점점 더 실타래 꼬여들 고여만 가는 것일까?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이렇게 꼬인 것들을 펴서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이다. 우선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풀뿌리 교육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정책은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의지에 의해서 교육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강제로 요구되어 왔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와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와 개선은 교육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추진한 교육개혁이 오히려 학교를 더욱 실패한 조직으로 만들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 공교육이 타 시·도에 경쟁적 위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교육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할 일은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는 작업이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가장 큰 기조의 하나는 사교육 없애기이다. 어떤 교육정책이라도 그것이 사교육을 지극할 가능성이 보이면 폐기되는 경향이 있다. 사교육 없애기 기조가 학교교육의 많은 부분을 왜곡시키고 있다. 우선 정규교육과정보다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더 중시되는 기현상을 야기하였다. 정규교육과정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큰 관심이 없다. 정책자금은 대부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투입된다. 교육개혁의 초점이 정규교육과정 개선보다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주어진다. 따라서 인천공교육이 타 시·도에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치중된 노력과 자원을 정규교육과정 운영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사교육 방지 이념으로 인해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 중의 하나가 학력의 경시 현상과 교과학습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학력과 인성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학력만 높으면 뭐하나요. 인성이 좋아야지.” 이것이 학력 경시 풍토의 철학이다. 정말 학력이 높으면 인성이 나쁘고, 학력이 낮으면 인성이 좋은가? 학력도 높고 인성도 좋은 학생이 되도록 교육할 수는 없는가? 요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성, 창의, 행복이란 명분 아래 학력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의성, 인성, 행복이라는 명분 아래 많은 정책적 노력과 재정이 방과 후 시간에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투입되고 있다. 학생의 창의성, 인성, 행복은 교과교육을 통해서 안 되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라는 학술적 증거는 없다. 오히려 교과든 비교과든 학교의 모든 활동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체현될 때 진정한 의미의 인성교육과 행복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창의, 인성, 행복이 학교에서 학력을 경시해야 할 어떤 명분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천공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에 의한 교과학습의 회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를 어떻게 가르쳐야만 학력, 창의성, 인성, 행복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현재는 교육과정운영 규정 및 입시준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과서의 지식을 이해, 암기하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인천공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입시위주의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을 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다. 교과는 대표적인 인간 활동영역을 집약한 것이며, 교과서의 내용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정립된 지식체계를 요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린 지식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교수-학습을 탈피하여 학자가 지식을 산출하는 탐구과정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방법을 정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천공교육이 타 시·도에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방법의 획기적 개선을 가능케 하는 교육과정 운영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표준화된 국가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Interview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인천의 학력절벽 문제 해결하고, 진학을 높이는 모형될 것”



인천광역시교육청
이 임 구 장학사

아프리에 80호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이임구 장학사를 만나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취지와 목적, 진행과정과 선도학교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고, 초기 출발선에서의 논란 원인과 선도학교의 반성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진단체 보았다.

Q : 먼저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 학력향상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는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선도학교가 출발하기 전에 워낙 인천의 학력이 낮다는 사회적인 비판과 함께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자체가 개별학교의 발전을 꾀한다기보다는 인천학교의 저조한 학력을 돌파하려는 수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천의 학력을 선도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력을 선도한다는 것이 예컨대, 기러기가 날아갈 때 맨 앞에서 전체 무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지만, 타산지석으로 내지는 좋은 모범다리를 창출해서 이끌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력 향상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주고, 다른 일반 학교가 따라 줄 수 있는 것들을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나서서 창출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인천의 공교육 성공사례가 필요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고자 선도학교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도학교의 시작점에서 대상 지원이 많지 않다 보니 일반 학교에 예산이 집중되고, 학교간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원래의 목적이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모든 학생을 만족시켜주기에는 무리인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이나 학교가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Q : 처음 선도학교의 의도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A : 애초에 선도학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지역 내에서 우수한 학교를 선별해야 되느냐, 향상을 선도하는 학교를 선별해야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우수한 선별 효과를 가진 학교를 선정, 운영해 지원하는 것은 학력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학력향상선도학교는 말 그대로 ‘향상을 선도’하는 것인데 향상을 많이 시키는 학교 역할 밖에는 실제 선정된 학교에서는 내부적으로 성과가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학력이 높지 않은 학교로 인식되는 학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성과가 좋은 학교 중심으로 선정을 하다보니,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선별이 높은 학교가 더 좋은 학교라는 사회적인 평가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운영은 학력이 높은 학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향상을 선도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진행한 것이어서, 중간평가 결과를 보니 선정 자체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 초기에 그러한 선정기준은 잠재 가능성을 보고 선정을 했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논란이 많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수 학교를 선정하라고 하고, 여론도 그렇고, 초기에 잡음이 많았는데, 어떤 논란들이 있었나요.

A : 선도학교에 선정된 이후에 인천의 수능 1,2등급이 전국 최하위등급이라는 교과부의 발표가 있었고, 선도학교에 대한 기대가 전체 학생의 고른 학력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급격하게 수능 1,2등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여론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인천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이 되었고, 그 중심축에 선도학교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수능 1,2등급입니다. 1,2등급의 문제가 인천의 학력 문제 뿐 아니라 전국의 일반고와 특목고의 학력격차, 강남과 비강남의 학력격차,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력격차처럼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1,2등급의 학력격차인데, 그러한 학력 격차의 논란에 인천 선도학교가 전면 노출이 되어서 1,2등급 방어에 관련된 책임을 선도학교가 우선적으로 지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초의 고른 학력평가, 중간층 학생의 학력을 향상 시켜주고 학교가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고른 학력향상을 도모해야 된다는 교육적 정당성과 더불어 인천의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 마지막 1,2등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두 가지 요구사항에 논란이 있었다고 봅니다.

Q : 그렇다면 어떻게 선도학교 사업을 이끌어가야 할까요.

A : 인천이 원래 1,2등급 자체가 낮은 것이 아니고, 2학년 11월에서 3학년 6월 사이에 급격히 감소를 하는데, 그래프로 보면 일종의 절벽과 같은 현상을 나타냅니다. 비율이 4% 정도 빠지고, 인원으로 보면 1,200명 정도의 1,2등급이 없어집니다. 학생 입장에서 대학진학을 측면으로 보면 1,200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1,2등급 수준의 우수한 학교로 진학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대학 수능 중심의 대학진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1,2등급이 하락했어도 실제로 대학진학은 그것보다 더 많은 수가 진학을 합니다. 이렇게 급격한 하락현상을 우리는 소위 ‘학력절벽’이라고 하는데요, ‘학력절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학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재 인천 전체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학교가 모형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선도학교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 선도학교를 평가해주신 것처럼 사업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원적인 문제제기에 선도학교가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좋은 사업은 교육청이 받아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좋은 모형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아닌 교육적인, 즉, 교과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예산이 없어도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성과를 유지할 것이냐인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시스템 개선이고, 두 번째는 교원역량 강화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선도학교 후반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담:배은주(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기록·사진:장순지(정책연구실 연구기획팀)

줌 인친 ZoomIncheon

십정동 우시장 시장 상인회 중심 환경 정화운동으로 새단장

하설희(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임)

1. 십정동 도축장의 유래 및 역사

현재 부평구 십정동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소고기를 살 수 있는 우시장, 곱창·천엽·육회 등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즐비해 있는 '십정동 도축장'이라는 명칭을 생각할 것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십정동이라고 검색하면 '십정동 도축장'이 연관 검색어로 제시될 정도로 '십정동 도축장'은 인천에서 신선한 고기를 구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하나의 명사로 쓰여 지고 있다. 십정동 도축장은 열우물사거리에서 가까워 '십정동 우시장'으로 불리지만, 실제 행정구역상 서구 가좌4동 480-18번지에 위치해 있고 공식 명칭은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이다. 즉, 부평구 십정동과 서구 가좌동의 경계에 있으며 십정사거리에서 가좌IC 방면으로 200-300미터 내려가면 우측 안쪽에 위치해 있다.



십정동 도축장에 형성된 상점



인천축산물 백화점

18세기에 제작된 <여지도>와 <동국지도>를 살펴보면 십정동 일대는 갯고랑이 깊이 포진돼 있거나 한남정맥이 관통하는 남쪽 주변부의 평지로 그려져 있다. 즉, 십정동 일대는 사람이 거주할 만한 땅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현재의 십정동 도축장에 이르는 길까지 갯물이 흘러들어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곳이 사람의 체온이 갯물기 시작한 것은 1940년 제2차 인천 부역확장에 따라 인천부로 편입되고부터였다고 한다. 또 하나의 일설은 현재 상정초등학교 위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은 사시사철 얼지 않을 만큼 열이 난다 해서 붙여져 열우물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와전돼 십정동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십정동에 도축장이 생기기 이전에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도축시설을 갖춰 놓고 도살 작업을 했던 곳은 배다리를 넘어 우각리(금창동) 고갯마루 아랫길에 위치해 있던 인천 도축장이었다. 우각리(금창동) 고갯마루는 현재 동구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리인데 1916년에 개설돼 동구청이 들어서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 도축장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일본인에 의해 발간된 1933년판 인천부사에 의하면 인천 도축장은 1916년 9월 6일에 허가를 시작으로 부지 평수 689평, 건물 평수 99평, 직원으로서는 부서기 1명, 도살부 3명을 두었고 소 돼지 말 양 개 등 가운데 소와 돼지를 중심으로 연 평균 6천여 마리를 도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구와 도시의 확대 그리고 교통의 발전에 따라 인천의 시세는 급속도로 확장하게 되었고, 더욱이 1960년대 중반부터 기치를 올렸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책'에 따른 경인공업지대의 활성화는 철도부설 역세권들을 중심으로 공업, 주거, 교육, 상업 시설들이 들어서는 조건이 되었다. 인천 도축장은 이러한 시세 변화에 따라 본의 아니게 주거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 행정부의 이전 계획에 의해 십정동으로 위치를 옮기게 되었다.

2. 현재의 가좌축산물도매시장

현재 십정동 우시장은 인천 도축장이 들어선 이후 자리잡은 경육상점으로 인해 1982년 5~60개의 상점이 시장을 형성하며 2005년 서구청으로부터 '축산물 재래시장'이란 명칭을 얻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인천도축장이 있는데, 주말을 제외하고는 하루에만 소 80두, 돼지 600~700두가 도축된다고 한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소들이 등급판정을 받고 인천축산물시장의 75%가 이곳의 고기를 가져다 쓴다고 한다.



소나 돼지를 실어나르는 차량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족발, 천엽 등등

소머리와 돼지머리가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는 이곳에서 소머리는 12만원, 돼지머리는 1만원에 팔리고 있다. 명절 때가 가장 큰 대목이며 명절이 끝난 이후인 지금의 입학과 졸업 시즌에는 한산한 편이다.



십정동 도축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돼지머리



주로 소머리 국밥집에서 대량 주문하는 소머리

도축장 정문 앞 골목에 곰창골목이 형성되면서 오래된 맛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2006년부터 시작된 도시재개발 계획으로 대부분의 식당이 헐리게 되어 많은 맛집들이 이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 현대식 대형마트에 밀려 쇠퇴하고 있지만, 시장 상인회를 통해 환경정화운동을 하여 매장외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구청도 현대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카페 Collective Community Studio 525

- <http://db0353.blog.me/10087449271>

학교혁신 사례분석을 통한 인천시 공교육 질 제고 방안

배은주(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 개요

본 연구는 기존의 위로부터의 학교혁신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비해 최근의 아래로부터의 학교혁신 사례인 혁신학교 정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혁신학교 사례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토대로 인천시 공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여러 학교혁신 정책들 중 최근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혁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초빙교사제와 교장공모제, 개방형 자율학교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의 '혁신학교' 정책은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기존의 학교가 가르침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주도권을 가졌던 데서 벗어나 배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돌봄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형성을 이루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혁신하는 학교로서, 기존 학교의 총체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주체적·자발적인 상향적 개혁 지향, 학교변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 지향, 협력 중심의 교육 지향, 선발효과가 아닌 학교효과 지향 등의 특징을 나타내며, 교육철학적 배경으로 사회구성주의 학습이론과 학교조직 패러다임의 전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등장, 배움의 공동체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 경기도와 서울의 혁신학교 사례와 시사점

경기도의 혁신중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이전에 소규모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학교혁신을 시작하였고, 혁신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의 신설학교로서 지역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형 혁신중학교는 외곽지역의 열악한 여건에 처한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혁신고등학교는 신설학교로서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공모제교장, 학생들과 합의한 생활협약 제정, 교사회의의 의결을 통한 교육활동 계획과 실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수업중심의 업무분장,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교장의 리더십, 학생자치권 활성화, 공개수업과 수업연구회 운영, 학생에 대한 개별적 돌봄, 교육복지 활성화 등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혁신학교 운영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교사들 간의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점, 학부모를 설득해야 하는 점, 학생들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점 등의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해 가고 있는 중이다.

혁신학교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교육적 시사점으로 배움 중심의 수업, 교사의 주체성과 자발성, 교장의 민주적이고 지원적 리더십, 교수·학습 중심의 행정체계, 소통과 협력 중시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4. 인천 공교육의 질 향상 방안

인천시 공교육의 문제점으로 경쟁과 학력 위주의 교육패러다임, 심화되는 교육격차, 열악한 교육환경 및 여건, 교육청의 지원 역할 부족, '좋은 교장'을 양성하지 못하는 승진제도, 수업참여 의지가 부족한 학생들을 들 수 있다.

인천시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 방향으로 '학생 · 학습 · 과제 중심의 교육 추구'와 '미래지향적 역량으로서의 협력 추구'

이 외에 공교육비 증대, 자율학교제도를 활용한 ‘인천형새학교’ 모델 시범 운영,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교육포럼’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도시동향 City Trend

세계의 학자를 배출하는 대학 도시, 하이델베르크

장소현(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리)

독일 남서부 라인강 지류의 네카르 강변에 위치한 하이델베르크는 1899년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의 배경이 되면서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된다. 독일의 여러 도시 가운데 중세의 모습을 잘 간직한 낭만적인 도시로 평가되며 도시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도시로 거듭났다.



이 도시는 인구 14만 5천명에 이르는 소도시로 약 27,000명이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 내 1386년에 세워진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하이델베르크대학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대학은 루프레히트 1세가 설립한 가톨릭계 대학으로 하인리히 선제후의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성장했다. 역사와 함께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에는 98만권의 고서, 6,800권의 필사본, 49만점의 비도서 자료 등 많은 도서관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설립당시 4개의 학부(신학, 법학, 의학, 철학)로 구성되었다가 1890년에 자연과학부가 5번째 학과로 처음으로 독립하여 추가되었다. 1969년에는 16개의 특성화된 학부로 나뉘었다가, 2002년에 다시 새롭게 개편되어 지금의 12학부로 나뉘었다. 현재는 12개의 단과대학과 3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130개국에서 우수한 인재와 학자들이 모여 들어 유럽의 역사 깊은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화학자 본젠과 생리학자 헬름홀츠 등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헤겔이 교수로 지내고 막스베버가 수학하는 등 유명한 인사들로 인해 더욱 이름이 알려져 있다. 이 대학을 통해 신인문주의와 낭만주의가 크게 발전했으며, 15~16세기 갈등의 시대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여러 부설기관과 활발한 연구로 많은 연구소들이 위치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부설기관>

대학부설기관	● 동물센터 ● 대학병원 ● 이집트박물관
대학부설연구관	● 생화학센터(BZH) ● 남아시아연구소(SAI) ● 과학연산협동센터(IWR) ● 하이델베르크 분자생물연구소(ZMBH)



>> 철학자의 길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철학자들이 거닐며 사상을 키웠다는 철학자의 길은 관광명소로도 유명하다. 하이데거, 야스퍼스 등의 철학자들이 이곳을 거닐며 사색을 하고 생각을 정리한 곳이라고 한다.



>> 학생감옥

1712년부터 1914년까지 치외법권 지역인 학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대학 자체에서 재판해 일시적으로 학생 감옥에 가뒀다고 한다. 당시 학생들은 이러한 처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감옥에서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이델베르크는 도시전체가 오래되고, 중세풍의 고풍스러운 느낌의 건물이 많은데, 그 중 하이델베르크 성은 13세기에 처음 지어져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에 이르기까지의 건축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성에는 1615년에 프리드리히 5세가 왕비를 위해 만들었다는 엘리자베스 문, 의학박물관, 전쟁 시 식수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 리터의 와인통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다. 여러 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긴 세월동안 파손되고 훼손되었지만, 그러한 변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미학적인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하이델베르크는 규모가 작은 도시이지만 지역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연구원소식 IDI News

인발연-인천항발전협의회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과 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이귀복)는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 파라다이스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 조인식은 올해 해양수산부의 발족으로 해양산업의 산업적 가치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를 맞아 인천항이 환황해지역에서 중추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항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연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우리 연구원은 해운, 항만, 물류, 해양환경, 해양관광 등의 분야에서 인천광역시의 정책연구를 수행해 온 바, 인천항발전협의회와의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인천항과 인천항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최근 인천항의 각종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물동량 창출 기반 마련, 인천신항 및 신항배후단지의 지속적인 개발,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항 항로 준설, 인천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여객터미널 활성화, 북항 및 북항배후단지 활성화, 내항재개발을 통한 도심 재정비 등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특히 인천항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항만계획, 도시계획, 물류계획 등 주요 기본계획 및 전략 간의 연계와 조정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도시인문학센터 도시경관이미지 현황과 자료화 세미나

제4회
 도시인문학세미나

인천의 도시경관 이미지 현황과 자료화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센터장 김민배)는 ‘인천의 도시경관이미지 현황과 자료화’라는 주제로 ‘제4회 도시인문학세미나’를 지난 7일, 오후 4시에 우리 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의 근현대사가 담긴 도시경관이미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자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김창수 센터장이 소장한 인천의 근현대 도시경관 자료도 함께 전시했다.

김창수 센터장이 ‘인천의 도시경관 자료와 DB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발표자는 사진엽서, 스테레오뷰 사진, 그림지도, 지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인천의 도시경관이미지를 소개한 뒤, 이들의 자료화 방안과 그 의의에 대해 제언했다.

토론에는 이영욱 외래교수(상명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외래교수), 우리 연구원 이인재 연구부장(도시기반연구부), 정지원 연구위원(도시경영연구부)이 참여해 도시경관이미지 관련 연구 내용과 범위, 자료구축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인천도시인문학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인천 도시경관이미지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67차 정기이사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 제67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30분에 송도브릿지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운영규정 개정(안), 2012년도 수지결산(안), 현황보고 등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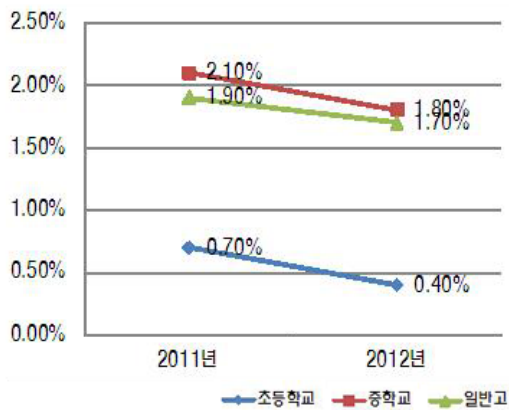


인천의 학력향상 지표

배은주(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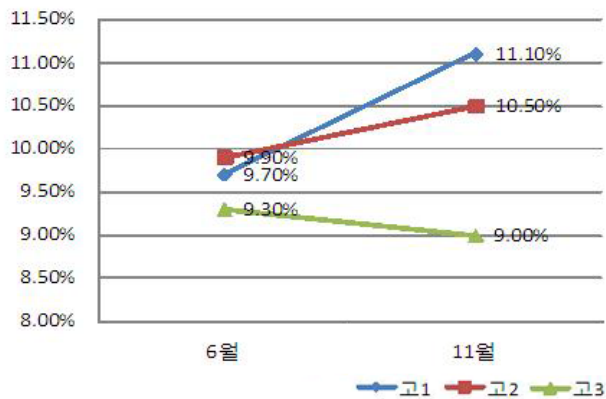
최근 인천 학생들의 학력향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2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국기초학력미달 감소율이 전국 최상위권에 속하였고, 고등학생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1, 2등급의 비율도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서인지 인천 학생들의 2013 대학입시에서의 진학 결과도 좋아지고 있다.

● 2012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



구분	2011년	2012년
초등학교	0.70%	0.40%
중학교	2.10%	1.80%
일반고	1.90%	1.70%

● 2012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1, 2등급 비율 변화



구분	2011년	2012년
고1	0.70%	0.40%
고2	2.10%	1.80%
고3*	1.90%	1.70%

*고3은 3월 대비 10월

● 2013 주요대학 진학결과

구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	POSTEC	의·치·한의대
2011	134	179	178	40	58	49
2012	142	238	238	41	65	50
2013	157	245	245	57	81	29

IDI 단상 IDI Platform



산세도에서 온 소국차

노란 마음 붉은 피,
소멸할 이 봄의 순간
이 정도면 충분한 사치와 쾌락

글/사진 조승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